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37개월-P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주 장로 2부/홍대원 장로 3부/김백열 장로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3:17-21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4:1-2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16) 함께 나를 본 받으라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남을 원망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543/새491장),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목회자도 나눕니다

Even the Pastors Shar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 부흥회 이후, 베델의 목회진도 매주 화요일 첫 모임을 시작할 때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사역 보고와 준비라는 딱딱한 일이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저부터 그날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기 시작하자 목회진들도 따라서 큐티를 나눕니다. 지난 화요일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나눔을 가졌던 모든 목회진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도둑질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스개소리로 “훌륭한 분들 인줄 알았는데 도둑놈들과 일하고 있었네. (^^)”라며, 정말 우리 모두는 회개한 죄인들로서 동역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으로 큐티를 끝낼 수 있지만, 나누면서 좀 더 유익한 점이 있다면, 첫째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근엄하고 점잖고 경건한 목회자로서 이미지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싸운 일, 속상한 일, 도둑질한 것까지도 나누면서 동역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몇 번 기도제목은 나눠 봤지만 큐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더 끈끈해짐을 느낍니다. 물론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지켜주면서 말씀 안에서 투명해지기를 바라고, 각자의 말과 생각을 해석하기보다는, 읽히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동역자로 성숙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한어 사역자, 영어사역자들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게 되는 장점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자라온 배경이 다른 두 문화권이 만나는 현장에서 같은 큐티 본문으로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한어와 영어가 만나 소통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진에서 가능하다면 후에 우리 영어권 자녀들도 같은 본문으로 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나눔의 전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처방 없이 그냥 솔직해지는 것은 실례이며, 때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의 인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때 우리의 깊은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본인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남에게 먼저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큐티를 한층 깊이 적용하고 나누면서 우리 목회진들은 답을 아는 척하는 비늘을 벗고 먼저 '나부터' 은혜받고, 더 투명해지고, 모범답안을 주는데 급급하기보다, 먼저 답안을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으로 큐티하며 시작하십시오. 몇 사람만 하지 말고, 온 교회가 다 같이 하십시오. 엄마 아빠만 아니라,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같은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Since the revival last week, Bethel Pastoral staff started sharing QT when we begin our first meeting on Tuesdays. Primary focus at these meetings were to give reports on ministries and preparation work. I began sharing Word for the day and its application. Pastoral staff followed suit and began sharing. Last Tuesday's QT passage was on compensation for causing damage. As we shared, all of the pastoral staff confessed their sins of stealing in the past. With laughter, I said, "I thought all of you were respectable people. I see that I have been working with thieves ^^", and we confirmed that we are all confessed sinners. QT could end with personal meditation. If there were benefits to sharing, first, it is looking into each other's lives. We were careful to maintain our images as being always solemn, gentle and godly. Now we begin to have sense of partnership as we share our quarrels, angers, and even stealing. When we pray together, there's been times we shared prayer topics. With QT sharing, our prayer topics have become deeper. I sense a greater bond. Of course, keeping our personal boundaries, we want to become transparent in the Word. Instead of interpreting individual's words and thoughts, we want to become mature as dutiful co-workers in the life that we live. Second benefit is that it overcomes culture and language barriers as both Korean speaking pastors and English speaking pastors share the same passage. Although we all work for the same church, we come from two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e have finally begun to communicate as we share the same QT passages from where these two cultures meet.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think a warm atmosphere will begin to take place as Korean and English words meet and mingle. If this is possible with the pastoral staff, then I believe the day will come when our English speaking children can share the same passage with their parents.

The premise of sharing is the Word. To become honest without prescription of the Word is a mistake and at times dangerous. Guidance of the Word must always precede. That's when our deepest wounds can be healed. If there was a common problem on QT with our pastoral staff, it is the tendency to give answer before their own life application. As we apply and share QT at a deeper level, it is my desire that our pastors will live out the answers in their lives instead of rushing to give answers, shedding the scale of pretense of knowing the answers, and receiving grace for themselves 'first', and becoming more transparent.

Dear Bethel saints! Let's begin each day in QT with the Word. Not just a few of you, but the entire church. Not just mom and dad, but kid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If we could all read the same Word, apply and pray, I believe there will be even bigger grace on top of grace that we have enjoyed.

빌립보서 강해 -제16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함께 나를 본 받으라
(빌 3:17-21)

1. 내가 꼭 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2.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참고 구절을 찾아봅시다.(17절, 참고/ 고전 4:16, 고전 11:1, 행 26:29)

3.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이면 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빌 3:12-14, 참고/ 롬 8:28, 고후 3:18)

4. '본(pattern) 받으라'는 우리가 바라볼 본(원형) 예수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하는 자들을 무엇이라 명하며,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18-19절)

뜻대, 신(god)	결과, destination

5. 우리는 바울과 같이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서 서로의 본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18절, 20-21절)

■ 적용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찬543/새491장),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IT 사역팀

선발 된 소수 정예 부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지만,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에 감격하여...

”

교회와 예배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IT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 다독여주시는 IT 팀장님과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바뀌어 버린 일상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활하게 Connect 될 수 있도록 목회진들과 스태프들을 도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꼈고, 교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을 보면서 큰 감사함으로 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강덕규 집사

IT 사역에 몸담으며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IT 사역팀을 맡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필요한 봉사자를 많이 모셔와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섬길 분들을 모셔오는 일이 쉽게만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를 찾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수고하신 팀

원 중에도 그만두시려는 분이 계셔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많은 일꾼이 채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봉사자를 붙여 주셨고,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며 헌신 된 소수의 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현근 집사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마한 지식이나마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지만,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



는 종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늘 배우고 섬기는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있으며, IT팀의 좋은 집사님들과 함께 사역에 몸담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섬기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집사님, 사역자들과 함께하며 늘 도전받고 배웁니다. 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월례회를 통해 그달의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모든 팀원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도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순종, 감사의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최태규 집사

BGC 영어 예배

새 성전에 가득 찬 주의 영광

할렐루야! BGC(영어 교회)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늘 예배드리던 'C' 성전을 떠나 Vision Chapel에서 예배드리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더 좋은 환경의 성전을 위해 아주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기간, 물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배당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쾌적한 공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훨씬 밝고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다는 것은 마치 예쁜 새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같은 죄인이 새로 산 옷을 입은 것보다 더 깨끗한, 주님이 주신 옷을 입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에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성전 공사의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BGC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위우정 집사

BGC(Bethel Grace Church) 영어 교회의 현장 예배가 큰 설렘 속에 새로 단장된 성전에서 9월 19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새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통해 찬양이 올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감격스런 시간이었으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깔끔해진 새로운 성전에서 성

도님들과 드린 첫 예배는 BGC에 속한 저희 모두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감격 자체였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이제 QR Code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각 예배 시간에 200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입니다. 각각의 예배 시간에는 자녀들의 교회학교 예배도 동시에 진행되며, 이번 공사를 통해 두 배로 넓어진 자모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귀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넓어진 자모실 그리고 새롭고 깨끗한 모습의 화장실, 예배당 중앙의 스테이지와 방송시설, LED 스크린, 그리고 예배당의 여러 문들과 미디어 및 재정실 등이 이번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장소들입니다.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의 첫 번째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두 번째 공사(건물 외관)가 이어져 진행됩니다. 1차 공사 비용을 위한 헌금 결단 이후 계속해서 필요한 재정 부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헌금 목표액을 두고 이제 2차 건축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 헌금도 저희 BGC를 통해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GC 대학부에는 많은 UCI 재학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부 학생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속한 모든 성도님이



제자 훈련과 셀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말씀하게 단장된 새 성전이, 주님의 크신 계획안에서

주님의 뜻이 활짝 펼쳐지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BGC 영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an Nam 목사(Executive & Family Pastor)



특별기획-성경이 말하는 건강(1)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길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요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자 베델의 의료 상담 전도사이시며 미국 병리학 전문의이신 이강민 전도사님과 '성도의 건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Being)이 되니라 (창 2:7)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8-19) 성경적으로 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면서 흙이 오염되어, 흙에서 나온 채소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가공된 음식 문화의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암, 신경성 질환, 정신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Autoimmune diseases)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식 과잉 섭취로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편식으로 인한 미세영양 부족, 몸에 해로운 조미료, 자기도 모르는 환경 오염과 독소를 섭취함으로 오는 모든 것이 서로 상관되어 치매까지 일으킵니다. Dale E. Bredesen 교수(UC San Francisco)는 치매의 원인 36가지를 지적하고 치매는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생기기 때문에 45세 때부터 예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치매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기억상실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모든 병을 통합적으로 치매(Dementia)라고 칭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많아서 치매를 하나의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원인이 서로 상관해서 생

기는 증상(syndrome)으로 봅니다. 일시적 건망증은 치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높아가는 나이입니다. 천문학적인 뇌세포 수(1,000억 개)가 나이 20세부터 줄어듭니다. 뇌 기능에는 약 40억 개가 필요한데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치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82세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치매를 포함한 현대인의 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베델의 성도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민 전도사 (10월 17일 주보에 계속)



내 안에 너 있단다



*예수아 영상보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또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도 두려웠던 제가 대학 시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배우려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길은 도무지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있는 미국에 다시 오게 되면 그 사랑 놓칠까 두려웠던 제게, '어디서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사랑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의 빛으로 유학길로 인도하셨고, 학교에 머무는 동안 신실하게 그 약속 지켜주시며, 삶의 무게중심이 주님과 친밀함이 되는 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은 소원을 품으며 나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아닐까 고민할 때에는, 부르시는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누리는 신비도 가르쳐 주

셨습니다. 그 신비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예수는 주의 것'이라고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것 또한 큰 감격입니다. 다양한 가능성 앞에서 복잡하게 느껴졌던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강수연(예살, 청3)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저 자신에게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려웠고, 항상 엄격한 잣대로 지적하고, 자신을 부족하다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주기를 바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사랑 받는다 느낄 때 행복하고, 사랑받지 못한

다 느낄 때 절망했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실패의 연속을 지나며 무기력하고 무의미해진 삶 속에서 사랑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던 때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다고,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던 순간에도 이미 내 앞에서 먼저 날 위해 싸우며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있었다고, "나 같이 추악하고 빈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 괴로워할 때도 내 곁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수(예살, 청2)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웹서버: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서찬석 목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차은하, 이사무엘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예수 리더 모임 및 셀목자 수양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학 2:9) 저는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예수의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 용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인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욱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베델교회의 지난 45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의 증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예수의 젊은 청년들은 베델의 선배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앞으로 더 빛나는 교회,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의 리더들을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하는 사역 리더들과 셀목자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고민하며 애쓰는 청년들을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팀 컨퍼런스 일시/장소: 10월 9일(토) 오후 2시-8시, 비전채플

▶ 셀목자 수양회 기간/장소: 10월 16일(토) 오후 3시-17일(주일) 오전 6시, 갈릴리 수양관

▶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독감 예방 접종 안내

오렌지 카운티 헬스케어의 협찬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인들과 지역 사회분들을 위해 본당 앞에서 무료 접종 기회를 마련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0월 9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200명 선착순)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앞(코트 야드)

▶ 대상: 베델 교인 포함,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분(3세 이상)

▶ 문의: 탁정호 장로 (714)488-9691, 교회 사무실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 | 10/10: ①부-박종민 ②부-왕동원 ③부-허용진
 10/17: ①부-이선갑 ②부-임낙현 ③부-김문경
 10/24: ①부-김병인 ②부-김응진 ③부-박성규

강단꽃(10월) | 10/3: 김형균, 윤주원, 이자영 10/10: 이석희 10/17: 박세환, 최재윤, 최인주 10/24: 서동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황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에배 및 토요 햄시바 전면 오픈 안내** 이제 QR 코드 신청 없이 주일 예배와 햄시바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 / 비전 주차장 주차**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베델 캠퍼스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즉시 출차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오전 5시 30분부터 비전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비전 주차장에 주차 하시고 교회 셔틀을 타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셔틀은 오후 1시 3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선교작정 현금(매월 첫째 주일)**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정하신 선교현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아침영상 메시지 400회 특집 [with 김양재 목사]**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가 10월 5일(화)에 400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 영상은 김양재 목사님(한국 우리들교회의 담임)을 모시고 Talk Show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 **수요프로젝트 "예.수.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이 찬양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영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6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예.수.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세례/입교식 및 유아세례식 안내** 성인세례 및 유아세례식과 입교식이 11월 7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은 각 부서에서 신청, 교육 문답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0월 3일(주일)~24(주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1. 성인세례 및 입교식(11월 7일-주일 2부 예배 시)
 -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 교육일시 및 장소: 10월 24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2층 컨퍼런스룸
 - 문답일시 및 장소: 10월 3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목회자실
2. 유아세례식(11월 7일-주일 3부 예배 시)
 - 신청 자격: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혹은 입교인)으로서 만 2세 미만인 자녀
 - 부모 문답 일시(온라인): 10월 27일(수), 오후 8시 30분, ZOOM Meeting

문의: 왕동원 장로 (949)910-1584, 김현균 목사(213) 359-6000

◆ **말씀 안에(In) 사는 베델인(人), 'QTin' 강좌** 말씀 안에서(In) 믿고 살고 누리는 베델인(人)으로 살기 위한 QTin 강좌가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4주간 열리며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1-2강: QT 이론을 위한 온라인강좌이며 자유로운 시간에 Google Classroom과 YouTube를 이용한 과제 제출 형태로 이뤄집니다. 3-4강: QT의 실제 적용을 위한 오프라인 강좌로 열립니다. 기간: 10월 16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4주간 신청 기간/방법: 10월 3일(주일)-10월 12일(화), 교회 홈페이지 문의: 황세현 집사(949)391-9497

◆ **일본어예배 이웃 초청 가을 운동회** 베델 일본어예배가 가을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을 초청하는 자리가 즐겁고 유익한 교제와 함께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0월 9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베델교회 체육관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 **BYM 중등부 Harvest Crusade** 오늘(3일) BYM 중등부에서 "Harvest Crusade"에 참여 합니다. 등록한 학생들은 5시 15분까지 교회로 와야하며, 자녀 픽업은 저녁 10시 30분 정도에 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무료로 제공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10월 31일(주일)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디/초콜릿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캔디와 초콜릿은 각 부서에 드랍하실수 있으며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자녀는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디나 초콜릿, 땅콩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10월 3일-10월 24일 (매주 주일)

◆ **Samaritan's Purse 캠페인**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Shoe Box를 만들어 보내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Shoe Box는 본당 앞 부스에서 픽업하실 수 있고 선물을 박스 안에 채우신 후에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날 픽업하셨던 곳에 Drop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10월 3일(주일)-10월 24일(주일) 1-3부 예배 직후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영아부 오픈** 10월 10일(주일)부터 영아부 현장예배가 오픈하오니 18-36개월 자녀 학부모님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픈 날짜: 10월 10일(주일) 2,3부

장소/대상: 본당 2층 영아부실, 18개월-36개월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독감예방접종 안내** 환절기를 맞이하여 OC health Care와 협력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베델교회에서 실시합니다. (7면 참조)

일시/문의: 10월 9일(토)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탁정호 장로 (714)488-9691

◆ **목회자 동정** 영아부에 이진영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사역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축하해주세요**

- 예살채플의 최의영 형제와 최은경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일(토) 있었습니다.
- 김희훈/박소희 성도 가정에 아들이 10월 3일(금)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최창수 집사님(최명자 권사의 남편)께서 9월 25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유천석 성도님(김명희 권사의 부친, 김병인 집사의 장인)께서 9월 28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Philippians 3:17–21)

1. Is there someone you want to emulate? If so, share your reasons.

Apply to Life



2. Paul says, "follow my example". Look at the reference verses to find the meaning. (v.17, Ref: 1Cor 4:16, 1Cor 11:1, Acts 26:29)

3. Paul did not say 'follow my example' out of arrogance. Perhaps, this is something we should be able to say if we are Christians. Why? (Phil 3:12-14, Ref: Ro 8:28, 2Cor 3:18)

4. 'Follow example(pattern)' means that the original pattern we should follow is the cross of Jesus. What does he call those that go against and what is the result?(vv.18-19)

Signpost, god	Result, destination

5. We must have tears like Paul. Let's pray with faith in our heavenly citizenship, so that we can be examples for one another and become more like Christ.(v.18)